

# 튀지 않는 방송, 사랑과 진실을 전하는 방송! 이 계 진의 방송인생

이계진. 그를 생각하면 그윽한 녹차향내가 난다. 진하지는 않지만 뭔가 생활의 활력이 되고 마음의 여유와 편안함, 그리고 유쾌함까지 갖게 하는 사람,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

그는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 본 사람이라면 깔끔하게 잘 정돈된 듯한, 그리고 편안해 보이는 그의 일상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때때로, 무게 있는 시사프로그램이나 적격일 것 같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재치 있고 기발한 이야기로 배꼽을 잡게 만드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감탄까지 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방송인 이계진이다.

방송에 따라 새로운 색깔을 띠는 그이지만, 방송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순수하고 검허함 그 자체여야 한다는 그의 소신이, 가장 안정감 있고 분위기가 있고 포근하고 재치있는 진행자로서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기억되도록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얼마 전 그만 둔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방송을 통해, '방송은 역시 사랑을 전하는 매체여야 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는 그이. 법정스님을 도와 '맑고

향기롭게' 운동에 동참하는 등 세상의

어두운 곳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굳이 이런

일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따뜻한

남자 이계진의

방송 인생을

들어봤다.

◀4

*Ami*  
38.8.20





▲ 대담을 하고 있는 이계진씨와 남서중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국장.

▶ 오랜 기간동안 방송인으로서 최고의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계신데,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지나치게 두드러지지 않는 방송, 결코 튀지 않는 방송을 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래야 싫증을 내지 않고 오래 기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무렵 어느 선배가, '방송은 맹물갈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먹을 때는 별 맛을 못느끼지만,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는 자꾸 마시면 그 자극에 식상하기 마련이죠.

순수한 맹물갈아야 시청자들이 식상하지 않습니다.

▶ 맹물갈다고 하지만 말았던 방송마다 다른 분위기를 내시던데...

그 프로그램이 갖는 무게랄까, 요구하는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 뿐입니다. 모두가 사람의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다만, 과장하지 않고 거짓말을 남보다 안하려고 노력합니다. 방송의 호도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가 있는데, 진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송을 하겠다는 원칙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늘상 말아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보도를 요구받을 때, 이를 수용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방송인의 괴로움이지요.

공인이라고 해서 잘못을 쉽게 용서하는 일도, 사실의 진위도 따지기 전에 질타부터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방송을 할 때 최소한 이런 기준은 갖고 진실을 전하려 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 한 번의 방송을 위해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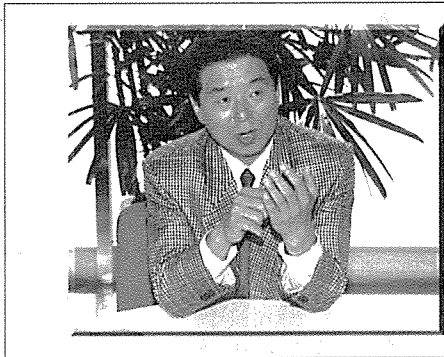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비중이 있고 생소한 프로그램이나 특집의 경우는 사전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정보수집도 하

고 공부도 합니다. 늘 하는 고정 프로그램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준비와 연습만 하고, 부수적인 것들은 제작팀에서 모두 맡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방송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일은?

모든 방송에 깊은 의미를 두기 때문에, 어느 방송이나 소중하고 기억에 남습니다만, 최근에 했던 '사랑의 리퀘스트'는 좀더 각별하고 애뜻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애뜻한 만큼 그 방송을 계속할 수 없어서 아쉽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 분들입니다. 아픔 가운데 놓인 사람, 그 아픔에 눈물 흘리는 사람, 천원짜리 모금 전화를 선뜻 걸어주는 사람들이 모두



- ◎ 1946년 강원도 원주에서 남
- ◎ 1970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 1973년 KBS 아나운서 입사
- ◎ 1983년 방송대상 MC상 수상
- ◎ 1992년 SBS 아나운서실장
- ◎ 1994년 프리랜서 아나운서 활동 시작
- ◎ 저서 :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바보화가 한인현 이야기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사랑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정말 흐뭇하고 보람있었습니다. '사랑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역시 방송 중의 백미가 아닐까요.

▶ 공인으로서 가장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행동거지, 말, 경제적 문제 등 모든 면에서 체면을 치려야 할 일이 많은 것이 가장 불편하죠. 더욱 때도 단정한 옷차림을 갖춰야 하고, 불의를 보고도 함부로 화를 낼 수 없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놓고 너무 좋아할 수 없는 일 등등, 많은 분들이 얼굴을 알고 있으니깐 작은 행동 하나도 조심하게 됩니다.

▶ 방송에 몸담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공에 맞는 일을 해 온거지요. 원래는 PD를 하고 싶었는데, 직접 방송을 해보면 어떨겠느냐는 주위의 권유를 받고 방송에 입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탁월한 선택이었음

이 틀림없습니다.

▶ 방송인으로서의 철학이 있으십니까?

방송인은, 시청자를 어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시청자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송을 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방송에 임해야 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흥수가 나던 날, 제가 맡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대본을 보고 그날의 우울한 분위기에 는 도저히 내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작진을 설득해서 방송 20분 전에 내용을 바꿨습니다.

대본없이 수해, 경제, IMF시대의 가정 바로세우기 등 요즘 세상살이에 대한 얘기로 시간을 채웠지만 어느 때보다도 감격적인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프로는 아닙니다. 좋은 프로는 베스트셀러와 같다고 봅니다. 한순간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히 읽히는 명작같은 방송이 되도록 해야지요.

▶ 요즘 진행중인 프로그램은?

"여성저널"과 "발견, 신비의 과학 세계", 불교 방송의 종교 관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사고 안내하려면 평소 목소리나 건강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실 텐데요?

목소리 관리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평소 건강상태가 좋으면 목소리는 당연히 맑은 법입니다.

저는 잠을 제때 자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밤 10시 30분 이후에는 가능하면 깨어있지 않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지요.(웃음)

그 외에 잘 먹고, 많이 움직이죠. 남에게 심부름 안시키고 가능한 한 제가 직접 움직이는 등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주말이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과할 정도로 하는 편입니다. 운동으로는 조깅을 즐기구요.

또 마음을 편하게 갖고,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방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